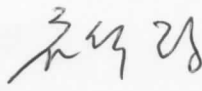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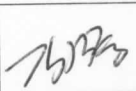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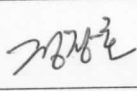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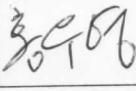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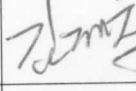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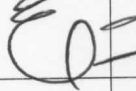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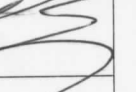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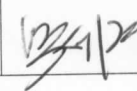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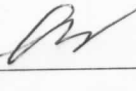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결재	의장 
	장소	광개토관 912B

2018년 8월 24일 금요일 14:00 ~ 16:00

안건	<p>가. 학칙 개정(안) 심의</p> <p>나.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p> <p>다. 불통 이사회에 대한 항의서 채택</p> <p>라. 수업계획서 개선의 건</p>
회의내용	<p>1. 회의 내용</p> <p>○ 최석림 의장 :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하고, 쉬운 안건인 학칙 개정(안)부터 심의기로 함.</p> <p>가. 학칙 개정(안) 심의</p> <p>○ 이수열 간사가 학칙 제4조(전공 및 입학정원) 개정에 대하여 설명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학년도 전공 및 입학정원을 확정하는 내용으로 2018학년도와 변동이 없음을 설명함. <p>○ 호텔관광대학 이희찬 학장이 학칙 제37조의2(연계융합전공) 개정에 대하여 설명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학년도 2학기 시행을 위해 연계융합전공으로 스마트투어리즘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융합전공을 신설함을 설명함. - 스마트투어리즘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융합전공은 소프트웨어융합대학과 호텔관광대학이 중심이 되어 신설하는 과정임을 설명함. 자기전공을 이수하면서 연계융합전공을 추가로 이수하는 과정이며, SW중심대학 사업 평가도 대비하는 것임을 설명함. <p>나.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p> <p>○ 일반대학원 교학과 문승규 과장이 대학원 학칙 (별표1) 일반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편성 및 입학정원, (별표4) 일반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별 수여학위명 개정에 대하여 설명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학년도 신문방송학과 명칭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임을 설명함. <p>○ 최석림 의장 : 14:13 정회를 선포하고 14:17 개회함.</p> <p>○ 김재철 부의장 : 의장이 따로 할 얘기가 있다면 회의 후에 해야지 회의 중에 정회를 선포하고 의장 개인 의견을 전체 평의원들에게 얘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함.</p> <p>다. '불통 이사회에 대한 항의서 채택'</p> <p>○ 김재철 부의장 : <세종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안건 '불통 이사회에 대한 항의서 채택' 관련> 발언을 함. 불통 이사회에 대한 항의서 채택 관련하여 준비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낭독함.</p>

의원 및 간사	김경중 (교원)	이문기 (교원)	정장호 (교원)	홍우영 (교원)	김재철 (부의장)	김성규 (직원)	장덕상 (동문)	이재욱 (동문)
								
	박세경 (학생)	이흥준 (학생)	이수열 (간사)	이기영 (서기)				
								

회의내용

‘1’. 대학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설립자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손인가? 아닙니다. 설립자는 그를 가리켜 ‘○○아’라며 대학경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학은 사유재산이 아니며 대학은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대학은 공공재인 학교법인 대학일 뿐입니다. 공동 설립자는 살아 계시고, 세종대학은 세종인 모두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대학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입니다. 대학은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운영되며 학생이 졸업하면 동문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교수이며, 학생과 교수들을 지원하는 것이 직원입니다. 그렇다면 대학은 학생과 동문, 교수와 직원들로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대학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어떻게 해야 할지가 결정됩니다. 대학의 진짜 주인은 학생, 동문, 교수, 직원으로 이루어진 대학구성원입니다. 진짜 주인을 대표하는 대학평의회는 대학 구성원들의 대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학의 법적 대의기구로 중요한 사안을 다룹니다.

그런 진짜 주인의 대표인 대학평의회가 대학평의회의 결의를 통해 총장 선출시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발전을 위해 이사회에 건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총장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수협의회는 “법인이사회의 일방적인 총장선임은 무효다”라는 제목의 2018.7.11. 이메일에서 ‘당사자인 배 교수는 (기획처장) 당시의 실책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숙해야 할 것’이라 하면서 “이번 법인이사회의 총장선임은 대학평의회의 결의를 통한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공모절차로서 무효이며, 총장 거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세종 가족 모두에게 제안한다.”며 법인이사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단합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대학 평의회를 대양학원 이사회가 무시하면 대학구성원들에게 이사회가 무시당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소통을 하지 않는 이사회는 실망을 줄 뿐입니다.

(--- 이 부분 74개 글자는 의장의 비공개 권유를 발언자가 수긍하여 비공개 함.---)

개인 또는 단체의 의견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정부나 기업에 의해 묵살 당한다면 침묵할 것이 아니고 항의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대학평의회의 “세종대학교 총장 선출 관련, 학내 구성원 참여 건의서”가 대양학원 이사회에 의해서 묵살당한바, 대학평의회가 항의표시를 하는 것이 구성원들을 대표하여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국가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이 주인이고, 대학은 대학을 구성하는 교수 학생 직원 동문 등 대학구성원이 주인입니다. 따라서 대학구성원들은 대학 정책결정의 중요한 이해 당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과 대양학원 정관 등에 규정된 대학평의회가 “학원의 민주적 운영과 대학자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닌 자가 있다면 대학 자치가 법적으로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인구절벽과 대학폐교 시대를 극복할 대학경쟁력은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소통과 비판지성의 대학자치 활동이 될 것입니다. 폐교의 전철을 밟는 대학은 이사장이나 이사회가 교육철학은 없고 대학을 비리와 부정의 온상으로 만들고 구성원을 탄압하고 소통을 외면한 대학들입니다.

대학 구성원을 대의하는 학내 최고의 심의 및 자문기관인 대학평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대학을 무시하며 대학구성원인 교수 학생 직원 동문을 무시한 것입니다. 존경받는 이사회의 모범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가짜 소통 말고, 제대로 된 소통을 해야 합니다.

	최석림 (의장)	김경중 (교원)	이문기 (교원)	정장호 (교원)	홍우영 (교원)	김재철 (부의장)	김성규 (직원)	장덕상 (동문)
의원 및 간사								
	이재욱 (동문)	박세경 (학생)	이웅준 (학생)	이수열 (간사)	이기영 (서기)			

대학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훼손하는 등 한 개인의 들러리로 다수의 인생을 불안감으로 기회주의로 잠식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스로 눈치 보게 만드는 왜곡된 소통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권한을 행사 하는 자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지지 못할 위치에 있는 자는 권한을 행사하여서도 안 되고 이를 종용하여서도 안 됩니다.

누구에게 권한을 받아 휘두르는가? 법률 및 규정과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부여 받지 않고서는 결코 정당한 권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 이사회는 대학구성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십시오.
- 기도모임 빙자하여 학사개입 의혹을 받는 모 인사는 이를 중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인이사회가 대학의 진짜 주인인 대학 구성원들을 무시한바, 이에 대한 이사회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항의서를 채택하여 학교법인 대양학원 이사장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2'.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3조의 "학원의 민주적 운영과 대학자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라는 '기능'을 위한 대학평의원회의 제 역할을 위하여 최소 매달 2회의 회의를 열어 위 사항에 관해 논의하기를 의장 등 전체 평의원께 제안합니다. 이상 부의장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회의
내
용

- 김재철 부의장 : 이 사안은 학원의 민주적 운영과 대학자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임. 대학발전과 총장선출 관련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 이사회가 건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선임했기에, 구성원 대표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있는 총장이 돼버린 것임.
- 홍우영 의원 : 법인 정관 제31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보면 총장 선출은 법인 이사회의 고유 권한 이고 평의원회 건의서에 답변을 해야 하는 의무가 법인 정관 등 학교 어느 규정에도 없음을 설명함. 김재철 부의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건은 발전적이지 않으며 열심히 하고자 하는 신임 총장에게 평의원회는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홍우영 의원 : (김재철 부의장의 월2회 평의원회 개최 제안에 대하여) 여기 있는 분들 월 2회 참가할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임. 그것을 위한 보직이 아니고 각자의 임무가 있으며 의원 모두 시간 맞추기도 어려움. 학교 발전에 진취적이고 핵심적이지도 않은 사항에 대한 주제 하나를 계속 논의한다는 것은 발전적이지 않은 평의원회 안건이라고 설명함.
- 이재욱 의원 : 처음에 임시회의를 소집한 내용은 항의서 채택과 항의 방문에 대한 논의를 위한 것이었으나, 학생 평의원의 안건 조정 요청에 따라 항의서 채택에 대해서만 논의하자고 변경하였음을 설명함
- 장덕상 의원 : 학원의 민주적 운영과 대학자치 실현을 위해 대학 4주체의 대표가 모였으며, 평의원회의 역할을 충실하게 완수함으로써 대학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설명함.
- 이문기 의원 : 평의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 대학평의원회 기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설명함.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대학에서 발전계획을 만들고 그것을 평의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지, 대학평의원회에서 발전계획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이러한 평의원회의 이사회에 대한 항의서 채택에 대해 학내 여론이 어떤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교원을 대표하는 교원평의원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 학내 교원들의 여론이 높지 않음을 설명함. 정관에 규정된 내용 속에서 답변 의무가 없다면, 이사회에서는 답변은 안 할 것임을 설명함.
- 김재철 부의장 : (구성원 참여)총장선출 관련해서 구성원들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 총장이 교비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에 관해서 법인이사회의 한 이사 혹은 전체 이사들이 관여된 사항이기 때문에 (총장 선출에) 구성원들의 의견이 들어가 있어야지 법인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가 있어서 건의를 한 것임을 설명함.

	최석림 (의장)	김경중 (교원)	이문기 (교원)	정장호 (교원)	홍우영 (교원)	김재철 (부의장)	김성규 (직원)	장덕상 (동문)
의원 및 간사								
	이재욱 (동문)	박세경 (학생)	이용준 (학생)	이수열 (간사)	이기영 (서기)			

회의내용

- 김재철 부의장 : 법인 이사회에서는 구성원의 대표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기에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하면서 지금 세종대학교 전 총장이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법인도 문제고, 전 총장도 문제고, 신임총장도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그런 위험적인 상황에서 건의 드린 것이니, 답변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바가 아니라고 설명함.
- 이재욱 의원 : 소통의 문제임. 4주체의 대표가 모인 평의원회의 건의에 대하여 '총장 선출은 이사회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평의원회에서 건의가 왔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런 정리를 해 주셨으면 이것이 소통이라고 봄.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총장을 선출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서로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측면에서 항의서를 보내야 함. 이사회에서 불가하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해줬으면 좋았을 문제임을 설명함. 답변이 없는 것에 대해 항의서를 보내서 '이사회에 주의를 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함을 설명함.
- 장덕상 의원 : 법인에서 답변을 준다면 평의원과 법인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설명함.
- 김재철 부의장 : 지금 총장은 대학평의원회 안건이 반영되기 위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총장이길 바람. 스스로 하자가 있는 총장이란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임. 왜냐하면 전 총장이 문제가 있어서 구성원들의 대표가 법인에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가 무시되고 임명됐기 때문에 스스로 하자가 있는 총장이라고 생각을 할 것임. 그리고 이런 노력이 전 총장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시, 다들 생각하고 있듯이 이사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이사에게 보고하고 지시받고 이런 잘못된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절차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음.
- 최석림 의장 : 그것을 왜 평의원회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김재철 부의장에게 질의함.
- 김재철 부의장 : 평의원회 규정에 '대학자치 실현'이 들어 있음을 설명함.
- 이재욱 의원 : 신임 총장님께서 평의원회 회의 후에 식사를 하지는 말씀에 소통을 하시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봤음. 하지만 이 문제는 총장님에 대한 선호 여부가 아니라, 이사회의 불통에 대한 문제임을 설명함.
- 박세경 의원 : 건의서를 보낼 당시에는 법인의 답변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평의원회 의원 모두가 하지 못하였음. 대양학원 정관을 확인해 본 결과 정관에는 평의원회의 건의에 대해 답변을 할 의무는 없음. 항의서 채택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하여 평의원들 간에 논쟁하기 보다는 정관 개정을 요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함.
- 김재철 부의장 : 법인에 항의서를 보내 법인의 의견을 듣자는 것임을 설명함.
- 최석림 의장 : 항의하는 것이 계속 업그레이드될까 우려됨. 바깥단체에서 계속 평의원회를 이용할 것이 우려됨. 회의록을 공개하고 평의원회 열사가 된 것처럼 이메일 확 뿌리고 그런 것이 싫다고 설명함.
- 김재철 부의장 : 평의원회에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함.
- 이응준 의원 : 총장 선출 관련 학내 구성원을 대표하는 평의원들이 이사회에 건의서를 보냈으면 이사회에서 건의서에 대해서 답변을 할 의무라든지 법적으로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했다면 된다, 안된다 답변 정도는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답변조차도 못한다면 이사회가 타 대학과 다르게 교내에서 안 열리고 세종호텔에서 열리는 그런 거리감도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의견조차도 답변을 안해주면 그 거리감이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함. 이사회가 학교와 동떨어진 기구도 아니니 이 현안 건의서에 대해 법인 답변이 없는 것에 대한 항의서 채택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최석림 (의장)	김경중 (교원)	이문기 (교원)	정장호 (교원)	홍우영 (교원)	김재철 (부의장)	김성규 (직원)	장덕상 (동문)
의원 및 간사								
	이재욱 (동문)	박세경 (학생)	이응준 (학생)	이수열 (간사)	이기영 (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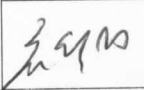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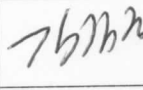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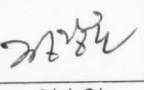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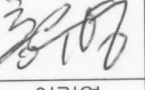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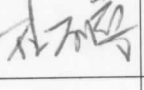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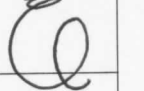
회의내용

- 정장호 의원 : 건의서에 대한 답변 여부는 이사회에 고유의 권한임을 설명함. 항의서를 보냈을 경우 또 답변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평의원 개인의 판단에 따라야 함을 설명함.
 - 김재철 부의장 : 한두 번 노크했는데 문을 안 열 경우엔 또 노크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설명함.
 - 김경중 의원 :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으로써 교원들의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함을 설명함.
 - 박세경 의원 : 교수 분들은 와 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의 주인은 교수님들도 학교의 주인이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함. 왜냐하면 학생들이 없으면 교수님들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것이며, 총장이고 재단이고 다 없을 것이라고 예상됨. 학생들의 여론은 교수님들과는 다르게 총장선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음을 설명함. 왜냐하면 전 신규 총장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퇴진하셨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번 (신규 전 총장) 재판에 학생들이랑 갔다 왔지만 기존에 논란이 됐었던, (소송비용을) 왜 재단이 돈을 내지 않았느냐? 피고 측이 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왜 교비로 썼느냐고 판사가 계속 질의를 하는데 변호사측이 답변을 못함. 1차 공판이라 아직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흘러가는 분위기는 제가 보기에는 무죄일 가능성이 전혀 희박하다고 느꼈음. 저게 쟁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쟁점으로 삼았고, 우리 대학이 유죄를 받게 되면 다른 대학보다 흔들릴 거라고 봄. 학생들은 그런 걸 많이 알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총장님 선출된 것에 대해서 왜 이번엔 뭔가 다른 액션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 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음. 교수님들 의견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학생들 의견은 그게 아니라고 설명함.
 - 장덕상 의원 : 사회적 분위기가 이럴 때, 서로가 비하적인 발언을 하지 말고 평의원회의 존재 가치를 생각해야 함을 설명함. 동문들에게도 많은 질문을 받고 있음을 설명함.
 - 최석림 의장 : 항의서 채택에 대해서 안건으로 채택할 것인지 의견이 다르니 투표를 제안함.
 - 이재욱 의원 : 평의원 4명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였으며, 이미 안건으로 채택이 된 것임. 항의서를 보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지 안건 상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을 설명함.
 - 최석림 의장 : 항의서 채택 및 발송에 대하여 평의원들의 찬반 여부를 투표하기로 함.
 -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5표, 반대 5표가 나오에 따라 의장은 항의서 채택 및 발송 건은 부결되었음.
 - 홍우영 의원 : 안건 의결 시 의사봉을 사용할 것을 건의함. 전체 평의원 메일 공지 건 발생 시 현재처럼 위원 개인이 전체 평의원에게 무질서하게 반복적으로 보내지 말고 체계적으로 간사에게 보내면 간사가 취합해서 의장의 승인하에 전체 평의원에게 보낼 것을 건의함.
- 라. 수업계획서 개선의 건
- 박세경 의원 : 교무처장님과 총장님께 건의된 사항으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평의원 안건으로 상정하였음을 설명함. <별첨1 참조>
 - 수업계획서가 부실하게 올라오고 있어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학생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부실한 수업계획서에 대한 교육점수 반영 비율이 미미함에 따라 수업계획서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함.
 - 이재욱 의원 : 시간강사 비율에 대하여 질의함.
 - 이수열 간사는 우리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비율은 타 대학에 비해 높음을 설명함.
 - 박세경 의원 : 전체적인 전임교원은 높을지 모르나 인문과학계열 전임교원 강의 비율은 상당히 떨어짐을 설명함.

	최석림 (의장)	김경중 (교원)	이문기 (교원)	정장호 (교원)	홍우영 (교원)	김재철 (부의장)	김성규 (직원)	장덕상 (동문)
의원								
및								
간사	이재욱 (동문)	박세경 (학생)	이용준 (학생)	이수열 (간사)	이기영 (서기)			

회의내용용

- 홍우영 의원 : 어제 교수연수회에서도 교무처장님이 학생들의 민원에 대해 교육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항이며 관련 규정에 대해 검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음을 설명함.
 - 이문기 의원 : 총학생회에서 공식적으로 교무처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 박세경 의원 : 과목별로 5개의 과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그동안 관례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대로 해왔으나, 총학생회 차원에서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고민해 보겠다고 설명함.
2. 회의 결과
- 학칙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기로 함.
 -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기로 함.
 - 불통 이사회에 대한 항의서 채택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5표, 반대 5표가 나옴에 따라 부결됨.
 - 수업계획서 개선의 건은 모든 평의원이 동의하므로 교무처에 전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함.
- 3 폐회선언
- 의장은 모든 안건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함.
- 4 회의자료
- 2018학년도 대학평의원회 임시회의 안건 각 1부. 끝.

	최석림 (의장)	김경중 (교원)	이문기 (교원)	정장호 (교원)	홍우영 (교원)	김재철 (부의장)	김성규 (직원)	장덕상 (동문)
의원 및 간사								
	이재욱 (동문)	박세경 (학생)	이용준 (학생)	이수열 (간사)	이기영 (서기)			
	